

패드인쇄기 전문생산 (주)엠에스프린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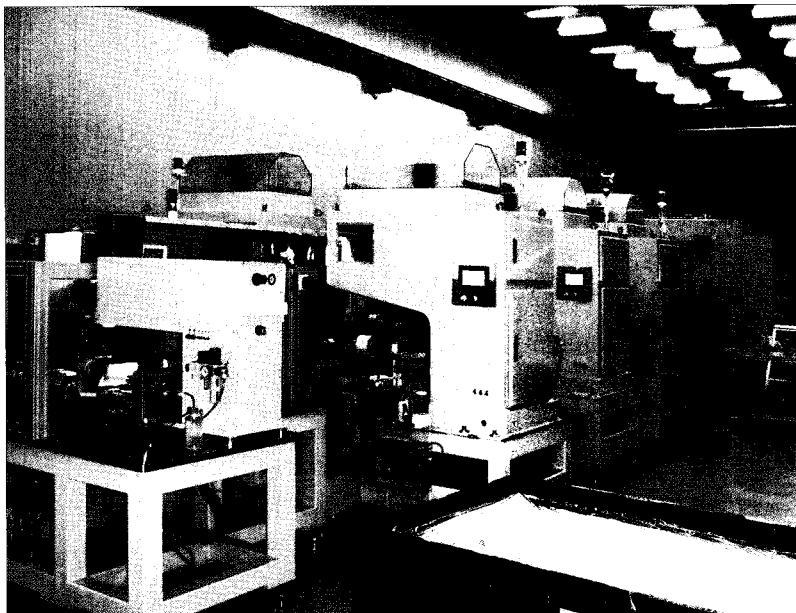
기술개발 집중, 패드인쇄기 시장 선도

고도로 정보화되고 급속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표면처리 공정에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표면처리 공정의 개발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고객제일정신, 기술제일정신, 품질제일정신을 바탕으로 패드인쇄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항상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회사가 있다. 바로 (주)엠에스프린텍(대표이사 신석태)이다. 2005년 미성산업에서 독립해 신기술 개발만이 생존의 열쇠라는 신념으로 최고급 인쇄기계를 만들겠다는 품질정신을 제일로 삼고 있는 (주)엠에스프린텍을 찾아가 보았다.

부단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한 신석태 대표이사는 1998년에 미성산업(패드인쇄기 제작)에서 총괄영업을 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5년 지금의 (주)엠에스프린텍을 설립했다. 현재 패드 인쇄기 및 실크 인쇄기에 연구와 자본을 집중 투자하여 개발에 성공했고, 자체 가공 설비와 연구 설비를 확충해 패드 및 실크 인쇄기 생산을 위한 우수한 생산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패드 및 실크 인쇄기를 생산하여 신속하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쇄의 자동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 현재까지 많은 업체의 무인 자동화를 인쇄 외의 자동 조립 라인, 검사기 등 여러 분야의 자동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판매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속, 정확한 판매 및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직접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패드인쇄기시장 개척

실크스크린인쇄는 망사에 막을 입히고 막이 입혀지지 않은 부분으로 흘러나오는 잉크를 이용해 인쇄하는 방법으로 주로 평면이나 원형의 곡면에 사용된다. 패드인쇄는 실크스크린인쇄의 한 분야로 평평한 철판을 얇게 파낸 후 잉크를 바르고 칼날 등으로 긁어낸 후 고무(실리콘 패드)로 찍어내 다시 제품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인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곡면이 심한 엠보싱에도 인쇄가 가능하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프라이팬, 장난감 모형, 도자기 위에 문양이나 글자를 새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국내 패드인쇄 분야가 오프셋 인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차이 나는 부분은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이미 인쇄기의 국산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주로 값싼 대만, 홍콩제가 시장을 휩쓸었지만 지금은 가격 경쟁력과 인쇄 품질력을 두루 갖춘 국산 제품들이 신뢰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은 용도에 따른 다양한 제품군 형성이 미비하다는 것. 대형 인쇄기 위주로만 공급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사용자는 기종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른 경쟁사들이 뛰어 들지 않은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성공한 회사가 (주)엠에스프린텍이다.

알찬 기능과 실용성 겸비

신석태 대표이사는 신기술 개발만이 생존의 열쇠라는 '기술제일 정신', 고객

의 작은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한다는 ‘고객제일 정신, 신뢰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최고급 성능의 인쇄기계를 만들겠다’는 ‘품질제일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른 제조회사들이 만들기를 힘들어하는 인쇄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신석태 대표는 “패드인쇄기 시장 형성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한다. 업체들이 제작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윤이 적기 때문. 이에 대해 신석태 대표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제품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이 현재 패드인



MS-901C와 신석태 대표이사

쇄기 시장에서 서서히 큰 윤곽을 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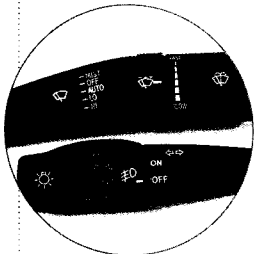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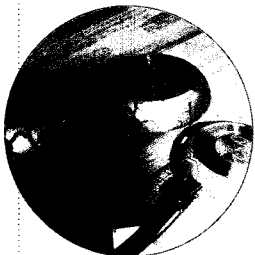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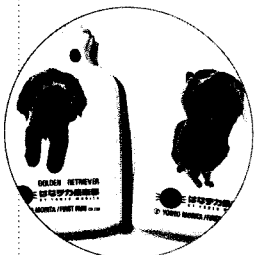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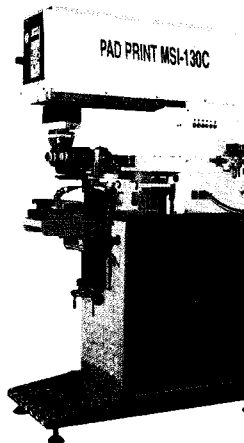
엠에스프린텍의 주력 모델 MS-901, 902

기존의 MS-910모델은 자동화장비에 안착하기가 불편하였으나 MS-901, 902모델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자동화장비에 안착하기 편리하며, 작업 속도도 기존 작은 모델보다 1.5배 정도 높였다. 구동 시 장비의 떨림도 많이 보강하였으며, 또한 이미지플레이트를 탈부착할 때 이미지 밀판과 같이 분리할 수 있게 하여 작업을 시작할 때 세팅 시간을 줄였다. 장비의 외관도 고려하여 보다 산뜻한 색으로 바꾸었으며, 도장이 시너에 강하게 처리하였다.

MS-910 모델은 가장 소형의 컵타입 패드인쇄장비이며, 소형제품의 고급 인쇄 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잉크 컵과 이미지 플레이트의 탈부착이 간단하고 다양한 옵션기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종류의 제품 인쇄 시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장비구동의 핵심은 각 구간을 정확한 시간으로 제어함으로 각각의 구동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급이미지 인쇄 시 0.5t 수지판을 사용, 긴 수명의 이미지 플레이트 요구 시는 0.3t 스틸플레이트를 사용한다.

MS-200C 모델은 대형 사이즈의 컵타입 패드인쇄장비이며, 대형 사이즈 제품의 고급 인쇄 시 사용한다. 잉크컵과 이미지 플레이트의 탈부착이 간단하고





다양한 옵션기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종류의 제품 인쇄 시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고급이미지 인쇄 시 0.5t 수지판을 사용하며, 긴 수명의 이미지 플레이트 요구 시는 0.25t, 0.3t, 0.5t, 10t 등의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패드의 행정거리가 길어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인쇄할 수 있으며, 응용범위가 넓고 각종 자동화장비와 연동이 용이하며, 장비의 내구성과 정밀도가 우수하다.

신석태 대표는 “MS 시리즈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간단한 교육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처리기 및 자동차 오디오 전면판넬 인쇄

코로나 처리기는 제품의 접착력 증대, 인쇄(패드인쇄, 실크, 오프셋, 그라비아 등), 코팅, 도장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품의 표면을 파괴, 처리하는 방식의 표면처리기이다.

이는 기존의 약품처리나, 토치(불꽃처리) 방식 등과 달리 작업상의 번거로움이나 제품의 수축, 변형 등의 손상과 화재의 위험성이 없어 산업 전반에 고루 사용되고 있다. 두 전극에 강한 고전압을 흘려보내 제품의 표면에 썩면 제품의 표면에 있는 원자와 전자가 분리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일정 시간 동안 제품의 표면을 형질변화 시킴으로써, 잉크접착제 등 이 제품에 완전 밀착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한다.

자동차 오디오 전면판넬 인쇄는 기존에 실크인쇄에서 패드인쇄로 전환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제품이 평명이 아니라 좌우 및 상하로 표면 각이 심해 패드인쇄 뿐만 아니라, 실크인쇄를 했을 때도 인쇄 이미지가 변형이 생기는 현상을 보완했다.

신석태 대표는 “처음 카렌스 모델에 적용을 시작으로 뉴아반떼, 뉴산타페 등 신규차종 6종을 추가하여 전량을 소화해 내고 있다”며 “최근에는 밤샘 연구 작업 끝에 LG의 LED 브라운관 케이스를 인쇄가 가능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패드인쇄의 한계 어디까지인가

패드 인쇄는 다양한 잉크 구조가 있다. 그러므로 무수히 많은 각기 다른 특성의 재질들을 인쇄할 수 있는 것이다. 패드인쇄는 가능성에 그 한계가 없을 정도이나 이러한 다양성은 또한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수없이 많은 재질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 그 한 가지이다. 그러나 최적의 인쇄 결과는 잉크와 제품의 재질이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얻어질 수 있다.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해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자금난을 겪을 때 한 프라이팬 업체에서 많은 물량의 큰 프라이팬 뒷면을 인쇄할 수 있느냐 제의가 들어왔다. 신 대표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었다.

신석태 대표는 “당시에는 프라이팬과 삼성패드 제품에 인쇄를 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앞으로도 기술개발 축적을 통해 미래 패드인쇄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품질의 기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

(주)엠에스프린텍은 내구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표준규격을 준용한다고 말한다. 특히 품질에 대한 신 대표의 의지는 분명하다. 신 대표는 “경험에 비취볼 때 영업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기계를 만드는 더욱 중요하다”며 “좁은 업계에서 구두로 전해지는 광고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엠에스프린텍은 고객제일이 라는 이념으로 한번 판매한 기계에 대해서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A/S를 책임진다.

신 대표는 앞으로 해외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싱가포르에 현지 지사를 두고 판매를 올리고 있고 해외 전시회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해외에 지사를 내 사세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